

성 유대철 베드로

청담동성당

강남구 삼성로 720 (홈페이지: www.cdssd.org)
 사무실: 02)3447-0750~1 팩스: 02)3447-0752

주 임 신 부 : 김민수 (이냐시오)
 부주임 신 부 : 심 욱 (베드로)
 부주임 신 부 : 방종우 (야고보)
 전 교 수 녀 : 박정숙 (아그리피나)
 최병애 (파우스티나)
 이새롬 (엘카나)
 사 목 회 장 : 이우출 (예로니모)
 연 령 회 장 : ☎ 010-7186-7222

주일미사	토요일	오후 3시(어린이 미사),	오후 7시
	일요일	오전 6시, 9시, 11시(교중미사),	오후 3시(중·고등부), 5시(청년), 7시(일반)
평일미사	월요일 / 토요일	오전 6시	
	화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고 해 성 사
	수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병자 영성체
	목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유 아 세 례
	금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관 면 혼 배

영 축 명

본당 사목활동을 하시는
최 파우스티나 수녀님의 영명축일(10월 5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영·육간 건강을 위해
 교우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본당 전신자 가을 야유회 (선착순 1,200명 접수)**

- 전신자가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즐거운 가을 야유회를 준비 중이오니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신청: 매 미사 후 성당 로비에서 접수 (접수비: 1만원)
- ◆ 일시: 10월 27일(주일) 오전 8시 ~ 오후 7시 30분
 ※ 가을 야유회 관계로 당일 새벽 6시 미사를 제외한 모든 미사는 없습니다.
- ◆ 장소: 충주 삼탄 유원지 (구역별 전세 버스 이동)

- ◎ **임산부 축복식: 10월 6일(오늘) 11시 교중미사**
- ◎ **견진성사: 10월 20일(주일) 오후 3시, 2층 대성전**
 - 집전자: 유경춘 티모테오 주교님 (견진성사 당일 오후 3시 중고등부 미사는 없습니다.)
 - 예행연습: 10월 19일(토) 오후 8시(대상자 필참)
- ◎ **새 예비신자 모집 (2020년 4월 세례 예정)**
 - 입교식: 11월 3일(주일) 12시 30분, 1층 프란치스코 홀
 - ※ 11월 3일(주일)이후에는 교리 수업 진행을 위해 예비신자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성당 사무실 (02-3447-0750)
- ◎ **예비신자 봉사자 모집**
 - 예비신자들을 위해 성실히 봉사해주시길 분들을 모집합니다. (※ 세례 3년 이상, 견진성사를 받으신 분)
 - 문의: 천 알베르타 (010-2220-8425)
- ◎ **아나바다 베품시장 (10월 13일, 주일)**
 - 본당에서는 지역사회와 함께 아나바다 정신을 살리면서 동시에 아이들에게 경제 관념 및 봉사 정신을 가르칠 수 있는 아나바다 베품시장을 개최합니다.
 - 신청: 매 미사 전후 (10월 6일(오늘)까지 접수마감)
 - 장소: 성당 마당, 1층 프란치스코 홀, 카페
 - 참가비: 1만원 / 기부금: 수익의 10% 이상 기부
 - 참가대상: 개인, 가족 또는 단체
- ◎ **구역주일 (10구역 주관)**
 - 일시: 10월 20일(주일) 오전 11시 교중미사
 - 구역주일에는 해당되는 구역에서 교중미사 때 미사 전례를 담당하고, 미사 후 1층 프란치스코 홀에서 친교의 장을 마련하오니 구역 활성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감사합니다**
 - 성전 신축공사를 위한 기금마련에 도움을 주신 모든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위례성모승천성당 이기양 요셉 주임신부

신립봉헌 (602명)	본당모금 2차 현금	봉헌 총금액
161,931,700원	10,962,000원	172,893,700원

- ◎ **연탄 나누기 사랑의 동전 모으기**
 - 본당 빈첸시오회에서는 2019년 겨울 연탄 나눔 행사를 위한 '사랑의 동전 모으기 저금통'을 배부하오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 배부일: 10월 12일(토) ~ 10월 13일(주일)매 미사 후
 - 회수일: 11월 17일(주일)까지
 - 문의: 현 베로니카 (010-7169-7025)
- ◎ **한가문연 콜로키엄 (※ 레지오 활동)**
 - 강사: 임송 아른 선교사

일시	주제
10월 12일(토) 오후 8시	서울 순례길의 국제 순례지 지정
11월 9일(토) 오후 8시	서울 국제 순례길의 특징

- ◎ **신부님과 함께하는 온가족 봉사활동 (용인 수지 성심원)**
 - 대상: 온가족 (봉사시간 인정)
 - 일시: 10월 13일(주일) 오전 08시 20분, 성당출발
 - 문의: 자부회 (010-5430-5086 / 010-2090-7717)
- ◎ **영적 글쓰기 강좌 접수 (선착순 40명, 회비 5만원)**
 - 강사: 이창훈 기자(가톨릭 평화신문)
 - 일시: 10월 16일 ~ 11월 13일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
 -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
 - 문의: 본당 사무실 (02-3447-0750)
- ◎ **영어 기도 공부 모집**
 - 가톨릭 주요기도, 묵주기도, 레지오 주요기도, 자비의 기도, 영성체 전·후 기도, 루르드의 성모님께 바치는 9일기도 등
 - 문의: 문 안드레아 (010-3192-7122)
- ◎ **10월 6일(오늘): 군인주일 2차 현금**
 - 군인주일을 맞이하여 현재 군종교구에 계시는 김세영 파비아노 신부님(前 청담동본당 보좌신부)께서 오시어 강론하오니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 **10월 9일(수): 사무실 휴무 (한글날 공휴일)**

- 모임**
- 10월 6일(주일): 중고등부 자모회
 - 10월 7일(월): 춘천교구 후원미사 (오전 10시) / 성령 기도회(강사: 함옥숙 데레사)
 - 10월 8일(화): 여성 Co.
 - 10월 9일(수): 시문회 / 여성 구역장 모임
 - 10월 11일(금): 남성 Cu.

성가번호 입 당: 444 예물준비: 511, 210 성 체: 166, 164 파 견: 480

화 답 송

오늘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주임 신부의 독서 사목 이야기 (101)

서평 <천국의 열쇠>(4)

중국 선교의 위기와 갈등

치점은 드디어 지역 재력가 자씨가 기부한 땅에 ‘성 안드레아 성당’을 짓고, 수녀 세 사람을 데려와 고아들을 가르치는 학교와 진료소를 담당하게 한다. 그러나 애초부터 수녀원 원장인 베로니카 수녀는 본당 신부인 치점을 천한 가문 출신과 이해할 수 없는 그의 신앙관으로 인해 그를 무시하고 경멸한다. 치점은 수녀들이 중국사회의 관습에 따라 자선을 위한 바깥출입을 삼가도록 권하고, 사기꾼들인 왕씨 부부를 신뢰하지 말라고 하지만 베로니카 수녀는 완강하게 거부한다. 그러는 사이에 왕씨 부부는 수녀원 살림을 도둑질하여 도망가 버리고 만다.

치점에게 커다란 시련이 다가온다. 전염병 페스트가 중국 전역을 휩쓸고 지나가며 치점이 사목하는 파이탄도 죽음의 어둠이 뒤덮는다. 많은 사람들이 페스트에 감염되어 죽어가고, 치점 신부는 환자와 코가 맞닿을 정도로 가까이 하며 용기 있게 치료를 해주지만 역부족이다. 베로니카 수녀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생각지도 않게 선뜻 응한다. 추위, 수면 부족, 의약품의 부족 등을 겪는 가운데 옛 친구 탈록 의사가 포함된 구호대가 도착한다. 페스트로 인해 지옥으로 변해있다. 피로에 지친 치점은 “지옥이 이보다 더 참혹할까?”라는 탈록의 물음에 “지옥이라는 곳은 말일세. 인간이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라네.”하며 대답한다. 페스트의 기체가 거의 꺾일 무렵 최악의 사태가 발생한다. 탈록이 페스트에 걸린 것이다. 임종하는 탈록은 치점의 기도를 받으며 그의 팔에 안겨 죽음을 맞는다.

탈록의 죽음 이후 베로니카 수녀는 치점 신부와 논쟁을 벌인다. 그 수녀는 치점의 구원관을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무신론자 탈록이 구원 받을 수 있다는 치점의 말을 베로니카 수녀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 수녀는 제 1차 바티칸공의회까지의 교회 구원관을 대변한다. 즉, 세례 받은 사람만이 구원의 수혜자라고 주장하는 베로니카 수녀에게 제 2차 바티칸공의회를 대변하는 치점은 신자만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돌아보아 가책이 없는 성실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해외선교단 본부에서 시찰 방문을 맞이한다. 마침 친구 밀리 신부가 찾아온 때 홍수로 인해 성당이 무너져 내린 것이다. 그동안의 업적을 보여주고 싶었던 치점은 황망함 속에 밀리 신부를 맞게 된다. 고위 성직자다운 고귀한 품위가 배어 있는 밀리에게는 단지 런던 본부에 돌아가 자신이 할 강연에만 몰두하고 자기 선교단을 자기 업적을 자랑한다. 밀리 신부가 떠난 후, 베로니카 수녀는 치점 신부를 찾아온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의 오만과 고집에 대해 용서를 청한다. “전 지금까지 누구를 존경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부님, 당신은 너무나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제 치점은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이었을 것이다. 그 수녀는 부유한 오빠에게 청하여 이곳에 성당을 재건할 도움을 요청한다. 참으로 하느님의 섭리가 작용한 것이라 믿는다.

청담동 성당 주임 김민수 신부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동헌 예률		교무금 납부 현황	
연중 제 26주일	11,124,760원	총 세대수	4,178세대
위례 성모 승천 성당	10,962,000원	총 납부세대	1,355세대
교무금	37,785,000원	지난주 납부세대	10세대
성소후원금 (12건)	355,000원	총 납부율(%)	32.4%
감사 헌금 (09/25 ~ 10/01)			
노 프란치스코	200,000원	정 야고보	100,000원
			합계:300,000원